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행정복지센터 방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4.29(수)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공주시청 경제과, 행정복지센터 지원금 집행 담당 등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27.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오는 5.18.부터는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현장에서 ▲ 1차 지원금 지급 현황, ▲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선별 프로세스,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전화 폭주, 방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있지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최은경 (044-215-2861)
		담당자	사무관 인진희 (linjini76@korea.kr)